



“밝은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창의적이고 행복한 해리교육”

제44회 장애인의 날 안내 ‘나다움, 너다움, 우리다움’

- 인성인권안전부
- 2024.4.15.(월)

56402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해리중앙로 120 ☎ 교무실 563-6072 / fax 562-419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 학기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그린 영화와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아는 해리중학교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덧붙여, 뒷면의 퀴즈에 참여시는 분들 중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천영화 1



원더(2021년 재개봉)

*장르: 드라마 *러닝타임: 113분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어기’ 10살이 된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 주고 싶었던 엄마 ‘이사벨’과 아빠 ‘네이트’는 ‘어기’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한다. 헬멧을 벗고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내딛지만 첫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큰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어기’는 긍정적 성격으로 다시 용기를 내는데..

추천영화 2



학교 가는 길(2020년 개봉)

*장르: 다큐멘터리 *러닝타임: 99분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절반은 매일 왕복 1~4시간 거리를 통학하며 전쟁 같은 아침을 맞이한다.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아이를 위해 거리로 나선 엄마들은 무릎까지 꿇는 강단으로 맞서는데... 세상을 바꾼 사진 단 한 장, 엄마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된다!!

무장애여행지란? 배리어프리관광, 접근 가능한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등이 혼재된 용어로, 신체적 제약 때문에 관광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지를 말해요.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무장애 여행지 3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 참고)

버려진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다, 삼례문화예술촌&비비정마을

노외되고 방치되었던 공간이 사람의 손길이 닿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완주군 삼례읍에 자리한 삼례문화예술촌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지어진 창고 5동과 1980년대에 지어진 창고 2동이 문화예술의 향기를 담은 전시, 체험공간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창고로 쓰였던 건물들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천정고가 높아 열린 공간의 시원한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가까운 비비정마을은

마을 언덕에 자리한 정자 비비정과 삼례천의 풍광, 폐선된 옛 철로를 보려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이용할 식당이 없어 마을 할머니들이 힘을 모아 만든 농가레스토랑 '비비정'도 함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로컬푸드로 정갈하고 깊이 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절터와 가장 큰 돌탑이 있는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미륵사지는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 부여, 익산 3개 도시 8개 유적지로 이루어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하나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백제의 수도 중 한 곳으로 추정될 만큼 백제 역사에서

그 중요도가 높아진 익산에 조성된 미륵사지는

백제 왕국 후반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미륵사가 있었을 때를 상상하며 유적지를 돌아보세요.

특히 사찰 입구의 연못에서 동탑과 서탑을 한 눈에 조망하는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연못에 비친 미륵사지 석탑 사진도 한번 꼭 찍어보세요!!



휠체어 접근을 세심하게 배려한 평지 가람(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 남원 실상사

실상사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평지 가람으로 마을 가까운 들판 한가운데 자리해, '산절', '마을절', '들절'로 불립니다. 마당이 넓어 경내는 행하다 싶을 정도이고, 가람의 중심 당우인 보광전은 단청도 없이 맨 살을 드러내 소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볼 것없다 여겨지기도 하지만 국보 1점과 보물 11점이 있습니다.

단일 사찰로는 우리나라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입니다.

이곳이 보물처럼 소중한 이유는 보행약자를 배려한 공간구성 때문입니다.

일단 경내에 가파른 언덕길, 턱 높은 계단은 찾아볼 수 없고,

어쩌다 있는 단차는 경사로를 두어 이동에 불편이 적도록 하였고,

생태뒀간에도 장애인 해우소를 두었습니다.

다만 극락전 입구에 있는 증각대사응료탑까지는 휠체어 접근이 쉽고,

나머지 문화재 가까이로 접근하려면 길이 굴곡지고 울퉁불퉁해

동행인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2024. 4. 15.

옆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여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을 맞춘 분들 중 선착순 5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4월 18일 12:00까지)

-해리중학교 사랑반-

해리중학교장

